



조선대병원, ‘2025년 환자경험의 날’ 개최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22일 정오에 병원 2관 1층 중앙 로비에서 ‘2025년 환자경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환자경험 인식을 강화해 의료 질 향상과 환자중심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행사내용은 △환자경험 관련 캠페인 △배지 배부 △○/X 퀴즈풀이 △다짐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을 통해 환자경험평가의 대상이 되는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관리보장, 병원환경 등의 항목들을 홍보했고, 전 직원이 마음에 새길 6가지 실천요소(소통으로 공감·경청·설명·먼저 인사·깨끗한 환경·안전한 병원)를 배지로 만들어 배부했다.

김진호 조선대병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환자경험의 날 행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교통공사, 교통약자 지하철 체험 행사

광주교통공사와 광주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 파인빌은 최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 서구 상무역에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하철 체험 행사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교통 약자의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을 돕기 위해 역사 시설물 견학,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 수칙 교육, 전동차 승하차 체험, 만족도 조사·건의 사항 청취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이번 체험 행사에서 수렴한 주요 불편 사항과 개선점을 반영,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사는 24일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협업해 상무역, 농성역에서 교통 약자 일일 명예역장 위촉 행사를 열고, 역 안내 방송, 승객 민원 안내 등 다양한 업무 체험 기회 제공에 나선다.

정상아 기자



호남대 뷰티미용과, ‘장애인의 날’ 재능기부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청 앞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 및 네일아트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내☆일이 빛나는 어울림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1000여 명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광주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호남대 정재림 학생(2년)은 “장애인분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었고, 뷰티미용을 전공하며 익힌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도시공사, ‘지구의 날’ 기후변화주간

광주도시공사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동참하고자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사진)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사는 기후변화주간동안 △기후행동(줍깅) 캠페인 △소등 행사 △기후위기 인식제고 환경영화제 △폐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 △녹색생활 실천 홍보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가입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주간의 시작일인 지난 21일에는 임직원과 노동조합 약 40명이 2개 조로 나뉘어 상무지구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행사를 진행했다.

김승남 사장은 “기후변화주간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광주은행 본점 앞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광주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본점에 입주한 협력사 직원들도 동참해 현장의 온기를 더했다.

현장에서는 헌혈 참여 외에도, 기념품을 대신해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헌혈 기부관’과 헌혈증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참여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나눔의 가치가 실현됐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연중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전남대-여수엑스포관리(주), 협약 체결

전남대학교와 여수엑스포관리(주)가 지역 MICE 산업과 해양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

전남대 문화사회과학대학(학장 배종옥)은 지난 21일 여수캠퍼스 인문사회과학관 2층에서 여수엑스포관리(주)(대표이사 김우석)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대학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MICE 및 해양관광 분야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 △관련 분야 과제 발굴을 위한 학술 교류 및 공동 행사 개최 △성과 확산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배종옥 문화사회과학대학장은 “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GIST 김호범 교수,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소자 분야 탁월한 연구 성과 인정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신소재공학과 김호범(사진) 교수가 지난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고분자학회의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국고분자학회 신진학술상은 고분자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신진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고,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미래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한다.

김호범 교수는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 및 소자 개발이라는 첨단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왔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학협력의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수여받았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활용해 발광소자, 태양전지, 뉴로모픽 소자 등



핵심 전자소자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김 교수의 연구 성과는 향후 고성능, 고안정성, 저전력 소자 구현을 위한

필수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해 한국도레이 과학진흥재단이 주관한 ‘제7회 한국도레이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되며,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고분자학회는 1976년 설립 이후 고분자 과학 및 공학의 학술 발전과 산업 기술 보급을 선도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고분자 전문 학회이다. 현재 45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약 2500편의 학술 발표가 이루어질 정도로 활발한 연구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최동환 기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종사자 전문가 교육 성료

남부대 산학협력단이 광주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은 지난 18일 남부대 산학관 3층 세미나실에서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전남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인 화순전남대병원과 연계해 ‘특수아동의 이해’와 ‘종사자의 정서관리’를 주제로 아동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성과 소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박현옥 남부대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특수아동의 이해’ 강의를 통해 아동의 다양한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돌봄 접근법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서영 동명아동상담센터 상담사는 ‘마음건강과 소통하기’ 강의에서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소통 방안을 제시해 참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다”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강남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께 꼭 필요한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특수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사자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내용이 함께 구성돼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종사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단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배우 박정민, 시각장애인 위한 오디오북 기증

직접 운영하는 출판사가 펴낸 소설 ‘첫 여름, 완주’

배우 박정민(사진)이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의 소설 ‘첫 여름, 완주’ 오디오북을 한국장애인재단에 기증했다.

소설가 김금희가 집필한 ‘첫 여름, 완주’는 주인공 손예매가 친하게 지내던 언니 고수미에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수미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은 무제의 ‘듣는 소설 프로젝트’ 첫 결과물로, 종이책이 먼저 발간되는 일반적인 책과 달리 이달 말 오디오



오북이 공개된 후 오는 5월 종이책이 출간된다. 이달 초 국립장애인도서관에도 기증됐다.

오디오북 녹음에는 고민시, 김도훈, 염정아, 최양락, 김의성, 박준면, 배성우, 류현경 등 여러 배우가 참여했다.

기증된 오디오북은 한국장애인재단을 통해 전국 40여개 장애인 도서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시스**